

제43호 · 2017년 8월 23일

항만 · 물류 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  
총괄 · 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#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동향

## 극동지역 내 현대화 항만 멀티모달 단지 건설

- '올가베크«Ольга Бункер»'사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함
  - 이번 프로젝트는 연해주 올긴스키 지역에 위치한 항만에 멀티모달 단지를 건설하는 것임
  - 프로젝트가 완료되며 대형 선박 취급이 가능해짐
  - 항만에서 처리되는 화물은 수산물, 원목 및 목재, 대리석, 고무 타이어, 수출입 환적 컨테이너 등임
- '올가베크'사는 이번 항만 단지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를 거쳐 중국-유럽간 화물 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  - '올가항-모스크바-유럽'까지 약 1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
- 동해 북서쪽에 위치한 올가항은 사할린, 한국, 중국, 일본항만으로 일년 내내 운항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

### 올가항 전경

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6960/>(검색일:2017년 8월 18일)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6960/>(검색일:2017년 8월 18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## 보스토치니-나호드카 철도 연결 완공

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구역인 보스토치니항과 나호드카를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완공됨
  - 보스토치니항은 석탄 터미널 3단계를 건설 중이며 철송을 위한 야드 건설이 70% 진행됨
- 보스토치니역과 나호드카역은 1970년대 건설되었으며 보스토치니항은 물동량 증가와 항만 인프라 현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철도 연결이 필요했음
- 이번 철도 인프라 현대화 및 건설 프로젝트는 공공-민간 파트너십(PPP)으로 진행됨
  - 건설 자금은 'Port Management Company'사와 '보스토치니항'에서 조달하였으며 러시아 철도청의 기술로 철도가 건설됨
  - 철도역 건설 및 재건, 화차 제작, 야드건설 등에 약 47억 루블이 투자됨
- 이번 철도 공사가 완공되면 '보스토치니-나호드카'노선은 13개로 증가했으며 처리 물동량은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남
  - 약 5,250 미터의 철로가 연장되며 약 335개의 화차가 생산됨
  - 보스토치니 석탄 터미널은 석화 화물 운송 및 처리를 위해 전용 컨베이어 장비, 선박 적재 장치, 폐석탄 처리 시스템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음
- 2016년 보스토치니항 처리 물동량은 약 2,350만 톤으로 러시아 항만 석탄 수출량의 1/5을 차지하고 있음
  - 또한 극동지역 석탄 환적의 약 30%를 차지하고 있음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6971/>(검색일: 2017년 8월 18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### 제3차 동방경제포럼, 극동지역 교통·물류 인프라 관련 논의 예정

-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“9월 예정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지역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”라고 밝혔음
  - “러시아 동부 경제정책” 세션에서는 프로젝트 투자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, “극동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하는가?”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교통시스템 현대화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임
  - “극동-새로운 삶의 질” 세션은 현존하는 교통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하며, “우리는 이웃국가: 협동하는 러시아” 세션에서는 극동 러시아경제를 아태지역 경제권역으로 통합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확대 및 지역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임
  - 교통 분야 협력과 교통관련 공동프로젝트를 위한 논의는 “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 교통회랑 극동”에서 다룰 것임
- 캄차트카는 총 12개의 교통 및 물류, 어업 관련 프로젝트를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음
  - 그 중 지방정부가 승인해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개 프로젝트는 총 30억 루블 규모로, 약 5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
  - 자유항 입주기업인 “Terminal Seroglaska”은 페트로파블롭스크-캄차트스키 허브항 및 건화물 과 냉동컨테이너 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했음
- 하바롭스크는 유료도로 건설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위해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할 것임
  - 이 프로젝트는 치타-하바롭스크, 하바롭스크-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, 극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
  - 국가 및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하바롭스크 유료도로는 8월 말 시공할 계획으로 추가 투자 유치논의를 동방경제포럼에서 할 예정임

자료: <http://iltumen.ru/content/vladimir-putin-na-vef-budut-obsuzhdatsya-voprosy-transportnoi-infrastruktury>  
 (검색일: 2017년 8월 18일)  
<http://1prime.ru/News/20170817/827802433.html>(검색일: 2017년 8월 18일)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